

청소년의 원하지 않는 성행동의 발생과 관련 위험요인들\*  
The Incidence and Risk Factors of Adolescents' Unwanted Sexual Behavior\*

동의대학교 아동·가정환경학과  
부교수 윤 경 자

Dept. of Child & Family Environment, Dongeui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Gyung Ja Yoon

◀ 목 차 ▶

- |              |            |
|--------------|------------|
| I. 서론 및 문제제기 | IV. 연구결과   |
| II. 선행연구의 고찰 | V. 토론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ncidence and risk factors of adolescents' unwanted sexual behavior for a sample of 769 adolescent males and females. Seven percent of the sample experienced unwanted sexual behavior. Female adolescents were more likely to be victims of unwanted sexual behavior. Adolescents with an unwanted sexual behavior, as compared to those without, were more likely to have experienced pregnancy, to drink alcohol, to be sensitive to romantic circumstances, to love his/her partner, to have fathers with higher education, to have lower family income, to have friends with similar norms and attitudes, to be more experienced sexually, not to have both biological parents, to have parents who did not monitor their behavior closely, to get partner's pressure to get sexually involved, and to have higher devotion level toward partner or their relationship.

주제어(Key Words): 청소년(adolescent), 원하지 않는 성행동(unwanted sexual behavior), 성폭력(sexual violence), 위험요인(risk factors)

\* 이 연구는 2000학년도 동의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I. 서론 및 문제 제기

청소년들의 성행동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욱 활발해지고 대담해지는 양상을 보여 준다(조선일보, 1999a, 1999b, 2001). 청소년들의 성행동은 발달단계상 아직 미성숙한 단계인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후유증을 남길 뿐 아니라 HIV, AIDS와 같은 성병의 전염위험성 및 원치 않는 임신의 발생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게 한다(Irwin and Shafer, 1992). 청소년들은 청소년기에 정상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발달단계적인 과제를 수행하고 적응하는 데에도 많은 스트레스와 혼란을 겪게 되는데, 청소년기의 규범적인 발달과제를 벗어난 성행동은 정상적 발달에 손상을 주게 되며 청소년기 이후의 성적, 정서적, 사회적 및 인지적 발달에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청소년들의 성행동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면서 원치 않는 성행동도 발생할 것이라고 추정되지만 이와 같은 현상은 좀처럼 외부로 드러나지 않으며 보고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성행동 자체가 보고되기가 쉽기 않은데다가 청소년들의 원치 않는 성행동과 같은 자료는 실제보다 더욱 더 낮게 나타나기가 쉽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원하지 않는 성행동을 경험한 희생자들은 두려움 혹은 수치심 등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거의 얘기하지 않으며, 그런 일을 경험하였을 때에도 자신이 희생자가 되었다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은 데이트 관계에서 원하지 않는 성행동에 관여하게 되는 위험이 매우 높다. 한 조사를 보면, 54%의 여자대학생들이 14세 이후로 다양한 수준에서 원치 않는 성행동을 경험하였고(Koss, Gidycz, and Wisniewski, 1987), 또 다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 때 이것을 경험한 여자대학생들은 조사대상자의 70.4%에 이르렀다(Muehlenhard and Linton, 1987). 국내에서는 이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데 김용미와 김현옥(2001)은 27.8%의 고교생들이 시각적 및 언어적 성적피해를 포함한 다양한 성적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최근 청소년

들의 성행동의 범위와 발생을 고려하면, 청소년들이 매우 취약한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청소년들은 간헐적이고도 계획하지 않은 성행동에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Chilman, 1986), 피임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며(Zabin, Hirsh, Smith, & Hardy, 1984), 임신과 성병감염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Sonenstein, Pleck, & Ku, 1989).

그러나 청소년들이 원치 않는 성행동에 관여하는 데 관련된 위험요인들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이런 위험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원치 않는 성행동의 발생을 줄이고 이에 대한 개입을 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내에서 청소년들의 원치 않는 성행동에 관한 자료가 거의 없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원치 않는 성행동의 발생과 관련된 위험요인들을 파악하는 데 선구적 시도로서 그 의의와 중요성을 둘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원치 않는 성행동을 경험한 청소년과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간 차이에 관련된 위험요인들과 그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며 이것은 청소년상담과 교육, 그리고 다양한 수준의 개입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II. 선행연구의 고찰

### 1. 청소년들의 원치 않는 성행동의 발생률

대학생들의 강제적 성행동은 데이트강간, 데이트폭력, 성추행, 원치 않는 성놀이 등 다양한 표현으로서 수십년 동안 연구되어 왔다. 선행연구를 보면, 대학생 특히 여자대학생들의 다수가 원치 않는 성접촉을 한 것으로 나타난 것(Byers and Eno, 1991; Craig, 1990; Koss et al., 1987; Muehlenhard and Linton, 1987; Lisak and Roth, 1988)에 비해, 청소년기의 원치 않는 성행동의 발생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청소년기의 성행동에 관한 자료가 거의 없으므로, 청소년기의 원치 않는 성행동에 관해서는 더욱 알려진 바가 없다.

김용미와 김현옥(2001)은 고등학생들이 경험한 데이트폭력을 조사하였다. 이들은 심적폭력 및 성적 폭력의 발생을 알아보았는데 1,092명의 조사대상자 중 27.8%(n=303)가 최소한 한번 이상의 데이트폭력을 경험하였으며 남녀간 발생비율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이 수치는 신체의 일부를 쳐다보거나 의모로 평가하기 혹은 음담패설하기 등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아닌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을 제외한 직접적 접촉을 살펴보았다. 평가항목에 따라 전체 대상자의 2%(성교강요)에서 14%(신체일부 밀착)에 이르는 고교생이 성적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김예정과 김득성(1999)의 연구에서는 22%의 조사대상자가 성적폭력을 경험하였다. 이들은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더 많은 성적폭력의 피해를 당했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특히 심각한 성적폭력은 남녀간에 유의하게 남학생의 피해사실이 더 많았다.

국외의 연구 중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자료를 보면, Small과 Kems(1993)는 청소년 초기 및 중기에 속한 1,149명의 여자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원하지 않는 성행동의 발생을 살펴보았는데, 전체 대상자의 20%가 지난 1년간 원치 않는 성교를 포함한 원치 않는 성행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Koss와 동료들(1987)은 전국에 있는 32개의 대학교에서 3,187명의 여자대학생들과 2,972명의 남자대학생들에게 과거에 있었던 원치 않는 성행동 경험을 조사하였다. 여자대학생의 54%가 14세 이후로 원치 않는 성접촉을 당하였고, 남자대학생의 25%는 강제로 성접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접촉은 강간, 키스 및 애무 등 광범위한 범위의 성행동을 포함하였다.

Himelein, Vogel, 그리고 Wachowiak(1994)도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여학생들을 조사하였는데, 38.5%가 다양한 범위의 원치 않는 성행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만16세 이전에 이러한 경험을 하였는데, 이것은 앞에서 언급된 연구에서와 같이 여학생들이 어린 나이에 원치 않는 성행동을 경험하는 것이 드문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 2. 관련된 위험변인

**데이트 및 성경험:** 데이트를 시작한 나이와 횟수, 그리고 성경험은 원치 않는 성행동과 지속적으로 관련되어 있었다(Abbey, McAuslan, & Ross, 1998; Koss, Leonard, Beezley, & Oros, 1985; Malamuth, 1986; Malamuth, Linz, Heavey, Barnes, & Acker, 1995; Malamuth, Sockloskie, Koss, & Tanaka, 1991). 특히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한 경우를 보면(Kanin, 1985), 데이트추행을 하지 않았던 남학생들보다 데이트추행을 한 적이 있는 남학생들은 성경험이 더 활발하였고 항상 성파트너를 찾고 있었다. 성파트너의 수가 많은 남학생들은 데이트 파트너에게 성추행을 한 경우가 더 많았다. Malamuth와 동료들(1991)도 LISREL 모델을 이용하여 성교를 경험한 나이가 어리고 성파트너의 수가 많을 때 데이트 성추행을 한 경우가 더 많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런 연구들은 원치 않는 성행동을 주도한 남학생에 대한 관련 변수로서 원치 않는 성행동을 당한 여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지는 않는다. 피해자인 여학생들에게 관한 자료는 남학생들의 자료에 비해 훨씬 적었으나 Abbey, Ross, McDuffie와 McAuslan(1996)의 연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여학생들이 성행동에 더 자주 관여하는 것은 원치 않는 성행동의 피해자가 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었다(Abbey, Zawacki, Buck, Clinton, & McAuslan, 2001에서 재인용). Himelein, Vogel, 그리고 Wachowiak(1994)도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여학생들을 조사하였는데, 동의한 성경험을 경험했을 때의 나이는 뒤에 경험한 원하지 않는 성경험과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여학생들이 더 어린 나이에 동의한 성경험을 하였을수록 다양한 형태의 원하지 않는 성접촉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 예를 들면, 만14세 이전에 동의한 성을 경험하였을 때, 50%는 성접촉의 피해자가, 30.8%는 강제적 성행동의 피해자가, 38.5%는 강간미수, 그리고 15.4%는 강간피해자가 되었다. 반면에 동의한 성을 경험하지 않은 여학생들은 21.2%가 성접촉의 피해자가, 0%가 강제적 성행

동, 15.3%가 강간미수, 그리고 2.3%가 강간피해자가 되었다. 또한 이들의 연구에서는 성파트너수가 많을 때 모든 형태의 원하지 않는 성행동의 피해자가 되는 것이 서로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이런 변수들은 그 속성상 파트너가 있어야 해당 될 뿐 아니라 또한 논리적으로도 성파트너의 수가 많거나 더 어린 나이에 성경험을 하고 성적으로 활발할 때 원치 않는 성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된다. Koss(1985)는 어린 나이에 성행동에 관여하고 성파트너의 수가 많은 여학생들이 성적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변수들이 원치 않는 성행동을 경험한 피해자 청소년들과 관련되어 있는지 조사할 것이다.

음주: 음주와 성행동간 관계는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음주는 원치 않는 성행동이 발생했을 때 절반이상의 경우에서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도 관련되어 있었다(Abbey, et al., 1996; Collins and Messerschmidt, 1993; Muehlenhard and Linton, 1987). 원치 않는 성행동을 경험한 피해자들은 절반 이상이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술을 마신 상태였고(Abbey et al., 1994; Abbey, McAuslan, & Ross, 1998; Koss and Dinero, 1989), 원치 않는 성행동의 가해자들도 절반 이상의 경우에 술을 마신 상태였다(Abbey et al., 1994; Abbey, et al., 1998).

여성들의 음주는 종종 그 파트너에게 성행동을 할 의사가 있다는 뜻으로 오인되기도 한다. 실제로 남학생들은 술을 마신 여학생들이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보다 더 성적이라고 인식하였으며, 더 유혹을 당할 의사가 있으며, 성적 시도에 더 순응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Abbey and Harnish, 1995; Corcoran and Thomas, 1991; George, Cue, Lopez, Crowe, & Norris, 1995). 음주와 성행동은 서로 별개의 행동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분리하여 생각하지 않으며 특히 남학생들은 이것의 관계에 대해 자신들에게 더 유리하게 해석을 한다. Abbey와 동료들(1998)의 연구에서 나타난 남학생들의 언급은 이와 같이 만연된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 남학생은 “그녀는 남자를 유혹하고 남자에게 리드되는 것을 즐기는 단정치 못한 여자였다”라고 자신의 행동을

을 변명하였고, 다른 남학생도 “그녀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었고(술을 마심으로써) 그리고 원하는 것을 가졌다”라고 하였다.

파트너에 대한 사랑 및 헌신: 파트너에 대한 사랑이나 헌신이 원치 않는 성접촉과 관련되어 있다는 결과는 없으나, 선행연구에서는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성행동이 더 많이 발생하였으며 결혼을 약속하거나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이 더 높았다(윤경자, 1995; Christopher and Cate, 1985). Christopher와 Cate(1985)의 연구에서는 여자들이 데이트 파트너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있거나 성행동의 의미를 파트너와 논의를 하는 것 등은 혼전 성관계를 가지는 데 중요하다고 나타났다. 윤경자(1995)도 파트너간 애정강도가 증가하고 결혼의사가 있을수록, 그리고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성행동관여에 대해 서로 얘기를 나눌 때 혼전 성행동이 더 많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성접촉을 원하지 않더라도 파트너를 사랑하고 있을 때는 그 요구나 시도를 거절하기가 더 어렵다고 가정할 수 있다. 실제로 원치 않는 성행동은 대부분 서로 아는 사람간에 발생하는데(Koss, 1988; Sorenson, Stein, Siegel, Golding, & Burnam, 1987---Abbey, Zawacki, Buck, Clinton, & McAuslan, 2001에서 재인용), Koss(1988)의 연구에서는 이 비율이 84%에 이르렀다. 이 결과는 Koss와 동료들(1988)의 연구에서 지지되었는데 원치 않는 성경험을 한 피해자들은 대부분 그 가해자를 알고 있었다(85%). 특히 이들 중 60%는 부담 없이 혹은 지속적으로 데이트를 하는 사이에서 발생한 것이었다(Koss, Dinero, Seibel, & Cox, 1988). 따라서 지속적인 데이트관계의 한 요소인 파트너에 대한 사랑 및 헌신이 원치 않는 성행동의 위험요소로서 작용될 수 있을지 알아보고자 한다.

친구 및 또래의 영향: 성에 관한 태도와 행동이 친한 친구와 유사한 정도가 청소년들의 성행동에 어떻게 관여되어 있는가 하는 것은 일관적이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친구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행동을 비롯한 가솔, 약물사용 및 범죄 등 다양한 일탈적 행동에서 또래 친구는 전반적으로 강력한 요인으로 나타나는데, 나

이와 내용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e.g., Barber, Bolitho, & Bertrand, 1999; Toombs, Benda, & Corwyn, 2000; Tyler, Hoyt, & Whitbeck, 2000). 여자고등학생들과 여자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또래집단의 혼전 성경험이 응답자들의 혼전 성관계를 예측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변수였다(Herold and Goodwin, 1991). 다른 두 연구에서도 두 변수간에 긍정적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Marin, Coyle, Cynthia, 그리고 Kirby(2000)는 중학생들인 2,829명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행동 및 원하지 않는 성접촉과 또래의 규범간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래친구들의 규범을 따르고,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이성친구가 있고, 원치 않는 성접촉을 하는 것은 성관계를 가지는 것과 강력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Hall과 Flannery(1985)도 성행동이 경험이 많은 친한 친구들을 둔 청소년 여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강간을 더 많이 당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Himelein, Vogel, & Wachowiak, 1994에서 재인용). 다른 일련의 연구에서도 또래친구로부터의 압력은 중고등학생들에게 성가치와 영향력의 사회화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주거나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Kinsman, Nyanzi, & Pool, 2000; Lock and Vincent, 1995; Subin, 1999).

그러나 대학생들의 성행동에 관해서는 또래친구의 영향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는다. 윤경자(1995)는 남녀대학생들의 성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조사하였는데 친한 친구나 또래친구의 성행동과 유사한 정도는 대학생들의 성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반면에 여자고등학생들과 여자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또래친구의 성경험 정도는 응답자들의 성관계를 예측하는 데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Herold and Goodwin, 1981). 그러나 청소년의 원치 않는 성접촉에 관하여 이 변수의 국내연구의 결과는 찾아보기가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 변인의 영향력을 알아보려고 한다.

**가족적 요인:** 가족의 기능도 청소년들의 성행동과 관련되어 있다. 청소년의 성행동은 부모와의 애착수준이 높고, 서로 많이 관여하고, 부모가 자녀를

감독할 때 적게 발생하였다(Hayes, 1987; Hovell, Sipan, Blumberg, Atkins, Hofstetter, & Kreitner, 1994; Small and Kerns, 1993; Smith, 1997). 부모의 감독은 청소년 자녀들의 성행동과 임신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Small and Luster, 1994), 다른 연구에서도 부모의 적절한 감독의 부재는 청소년들이 더 많은 문제행동을 나타내는 것과 관련되어 있었다(Patterson and Strouthamer-Loeber, 1984). 부모들이 자녀들을 감독하지 않았을 때, 청소년들은 성문제를 더 많이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부모의 감독이 자녀의 친구가 누구인지, 혹은 자녀의 일정을 알고 있거나 자녀의 활동 등에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효과적인 부모의 감독은 자녀의 생활을 항상 간섭하거나 부모가 자녀와 늘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의 생활에 대해 적절한 관심을 보여주며 가족규칙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한다(Small and Eastman, 1991).

**가족형태, 즉 편부모 혹은 계부모의 가족배경도** 자녀가 방과후 감독되지 않는 채 있기가 쉬우므로 부모가 자녀를 감독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한다. Smith(1997)는 양쪽 생물학적 부모가 집에 없는 것이 청소년들의 성행동 증가와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딸에게는 양쪽 생물학적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은 성행동 발생을 낮추는 것을 예측하는 가장 유의한 변수였다. 부모의 감독뿐만 아니라 부모의 결혼형태도 청소년들의 성행동과 관련되어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변수들이 청소년들의 원하지 않는 성행동에도 관련되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상황적 요인:** 성행동은 그것이 발생할 당시의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임상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성행동에 관한 연구에서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한 변수이다. 즉 데이트 상황에서 한쪽 혹은 양쪽 파트너들이 분위기에 이끌려 어느 수준까지의 성행동에 관여하는 것을 허용했으나 그 이상의 성접촉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한쪽 파트너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이상의 성접촉을 포함한 원치 않는 성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윤경자(1995)의 연구에서

는 대학생들의 혼전 성행동에서 데이트 분위기를 포함한 상황적 변수가 남녀 대학생 모두에게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여자대학생들의 성행동과는 매우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 III.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중학교와 인문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 14개교에서 재학중인 청소년들이다. 각 구의 경제적 수준과 주거 지역 및 상업지역이 고루 포함되도록 하였고 각 학교의 교사들의 협조를 받아 시간을 이용할 수 있었다. 조사는 2000년 12월에 시행되었으며 8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Cover letter를 이용하여 응답률을 높이고자 하였고 설문지의 익명성과 자발적 참여를 설명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하였다. 그 중에서 783명이 응답을 하였는데 거의 답변을 하지 않은 14부를 제외한 769명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성별은 남학생이 48%, 여학생이 51%, 무응답이 1%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나타나 있다.

#### 2. 용어의 정의 및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용어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성행동:** 모든 형태의 신체적인 성적 행위를 포함한다.

**원치 않는 성접촉:** 모든 형태의 원치 않는 신체적인 성적 행위를 포함하며 성접촉은 성행동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었다.

**성행동은 윤경자(1995)의 '혼전 성행동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혼전 성행동을 네가지 단계로 나누어 키스, 애무(허리 윗부분), 애무(허리 밑부분) 및 혼전 성교에 이르기까지 점차적으로 관여한 성경험과 포괄적인 성경험의 유무를 측정한다. 최저 0점에서 최고 5점의**

<표 1>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 분	N(%)	평균
성별	남학생	370(48.7)	-
	여학생	390(51.3)	
나이	12	8( 1.1)	15.86
	13	66( 8.8)	
	14	86(11.4)	
	15	115(15.3)	
	16	193(25.6)	
	17	164(21.8)	
	18	117(15.5)	
가족수입	월 70만원 이하	51( 7.6)	-
	월 71만원-120만원	154(23.1)	
	월 121만원-180만원	171(25.6)	
	월 181만원-240만원	119(17.8)	
	월 240-290만원 월 291만원 이상	72(10.8) 101(15.1)	
아버지 학력	초등학교 졸업	32( 4.3)	-
	중학교 졸업	84(11.2)	
	고등학교 졸업	385(51.3)	
	대학교 졸업	205(27.3)	
	대학원 이상	45( 6.0)	
어머니 학력	초등학교 졸업	35( 4.7)	-
	중학교 졸업	133(17.8)	
	고등학교 졸업	459(61.3)	
	대학교 졸업	106(14.2)	
	대학원 이상	16( 2.1)	
가족형태	양쪽 생물학적 부모	725(95.6)	-
	편부모	26( 3.4)	
	부모 안계심	1( .1)	
	한쪽 계부모	4( .5)	
	양쪽 계부모	2( .3)	
성파트너 수	0명	667(92.8)	.19
	1	20( 2.8)	
	2-3	17( 2.4)	
	4+	15( 2.1)	
형제자매 수 (자신 포함)	1명	106(14.2)	2.08
	2	497(66.6)	
	3	118(15.8)	
	4+	24( 3.2)	

범위를 가진다. 문항의 내적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alpha=.86$ 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감독은 3문항으로 이루어진 5점 Likert척

도이며 Small과 Eastman(1991) 및 Small과 Kerns(1993)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였다.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녀의 친한 친구들을 알고 있는지, 자녀가 친구들과 하는 활동 및 계획에 대해 부모와 대화를 하는지, 부모는 자녀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알고 있는지를 측정한다(Cronbach's  $\alpha=.76$ ).

부모의 성태도와외의 유사성은 응답자가 성에 대해 아버지 및 어머니와 각각 비슷한 정도를 측정한다. '나의 성에 대한 태도는 아버지와 비슷하다' 라는 문항과 어머니와의 유사성도 같은 표현으로 나타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응답자가 인지하는 부모와의 유사성 정도에 의해 측정된다. 두 문항으로 되어 있고 5점 Likert형태이다 (Cronbach's  $\alpha=.94$ ).

원치 않는 성행동은 응답자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어른에게 원하지 않는 모든 형태의 성접촉을 당한 경험의 여부로써 측정하며 단일 문항이다. 이것은 응답자보다 나이가 적거나 같은 사람을 제외하지만 데이트 상황뿐 아니라 강간, 원조 교제 형태의 관계 등 다양한 형태의 성접촉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것이 원하지 않는 성접촉인 경우 여기에 포함될 것이다.

친구와의 유사성은 응답자가 인지하는 친구를 포함한 또래친구들의 성경험, 성태도 및 기대를 측정하며 네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5점 Likert형태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와 더 유사하며 친구의 기대에 더 부응한다는 것을 나타낸다(Cronbach's  $\alpha=.80$ ).

파트너에 대한 헌신은 현재 이성친구와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지속시키고자 하는 정도를 네 단계로 측정하며 네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부담없이 사귀고 있거나, 진지하게 사귀고 있거나, 앞으로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거나, 그리고 앞으로 결혼을 하고 싶다는 것을 측정한다. 응답자는 이 중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단계를 하나 선택하는데 결혼을 하고 싶다는 단계 쪽으로 가까울수록 헌신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파트너에 대한 애정은 과거의 이성친구와 현재의 이성친구를 사랑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두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5점 Likert형태이다(Cronbach's  $\alpha=.72$ ).

파트너로부터의 압력은 파트너가 응답자에게 성접촉을 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을 측정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에서 '매우 그렇다' 의 5점 Likert형태이며 단일문항이다.

### 3. 자료분석

통계패키지인 SPSS/pc<sup>+</sup>를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자료의 전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초통계를 이용하였고 연구목적에 위해서는 판별분석을 이용하였다. 척도구성의 내적일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신뢰도 측정을 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원하지 않는 성행동의 발생

전체 조사대상자의 7%인 53명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어른에게 원하지 않는 성접촉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requencies 분석을 통해 나타난 남녀 비율은 여학생들이 69.8% (n=37)로 대다수였으나 남학생들의 비율도 30.2% (n=16)에 이르렀다. 열 네 명 중 한 명의 청소년들이 원치 않는 성접촉의 피해를 당했다는 것은 실제 비율보다도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이것은 데이트에서 발생한 원치 않는 성접촉뿐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 발생한 원치 않는 성접촉도 포함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 2. 원하지 않는 성행동의 유경험 및 무경험 청소년들의 구별 및 관련변인

원치 않는 성행동의 유경험 및 무경험 청소년들을 구별하고 관련된 위험요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들을 원치 않는 성접촉 경험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판별분석을 위해 <집단 1>은 원치 않는

성접촉 경험이 있는 청소년, <집단 2>는 그런 경험이 없는 청소년으로 구성되었다. 종속변수는 원치 않는 성접촉이었고 예측변수들은 본 연구의 탐험적 목적을 위하여 가능한 관련있는 변수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예측변수들은 성행동, 음주, 파트너로부터의 압력, 형제자매와의 성태도 유사성,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감독, 부모와의 성태도 유사성, 성파트너 숫자, 이성친구와의 성태도의 유사성, 파트너에 대한 사랑, 임신 경험, 분위기, 친구들의 성경험 정도, 성별, 음란물 시청 및 독서, 파트너에 대한 헌신, 가족소득, 아버지 학력, 어머니학력 및 부모의 결혼 형태들로서 구성되었다.

전체 769명의 대상자들 중에서 예측변수들에서 한 변수라도 missing data가 있었던 대상자들을 제외한 460명이 분석에 이용되었다. 판별기능에 근거한 분류분석은 전반적으로 83%의 예측정확도를 나타내었는데, 원치 않는 성접촉을 경험한 <집단 1>은 65%, 그리고 그런 경험이 없었던 <집단 2>는 84%의 예측정확도를 나타내었다. 예측변수들은 원치 않는 성경험을 하지 않았던 청소년집단을 더 정확하게

예측하였으며 정준판별함수는 유의하게 나타났다 ( $\chi^2[13]=85.07, p<.00005$ ). 유의하게 나타난 모든 변수들의 평균, F값, 이 변수들의 판별함수의 집단내 구조계수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표 2>에서 제시된 예측변수들의 추출은 Wilks lamda에 근거한 Wilks방법이 사용되었으며 Stepwise analysis에서 사용된 순서대로 나타나 있다. F값은 집단간 평균의 차이검증의 결과로서 두 집단간 평균이 서로 다른지를 나타낸다. 판별함수의 집단내 구조계수는 특정 변수가 종속변수와 관련되어 있는 상관계수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다른 변수들과의 관계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표준화 계수와 비교해 볼 때 구조계수가 정준판별함수의 의미를 보다 더 정확하게 해석하도록 도와준다(김용미, 1994).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임신경험, 성접촉 당시의 분위기, 음주, 파트너에 대한 애정, 아버지 학력, 가족소득, 친구와 성태도 및 기대의 유사성, 성행동 수준, 부모의 결혼형태, 부모감독, 파트너로부터의 압력 및 파트너에 대한 헌신이 판별함수에 영향을 주었다. 임신경험은 가장 강력한 영향을 주

<표 2> 집단별 평균, F값 및 판별함수의 집단내 구조계수

변수들 <sup>a</sup>	원치 않는 성행동 유경험집단의 평균	원치 않는 성행동 무경험집단의 평균	F값	판별함수의 집단내 구조계수
임신경험	.09	.00	27.51*	.54
분위기	1.43	.49	21.44*	.45
성별	-	-	17.44*	-.27
음주	.91	.40	14.79*	.30
파트너에 대한 애정	6.31	3.96	13.46*	.40
아버지 학력	3.57	3.14	12.24*	.29
가족소득	3.23	3.49	11.55*	-.10
친구와의 유사성	11.03	8.33	10.60*	.31
성행동 수준	1.46	.47	9.65*	.48
부모의 결혼형태	1.11	1.03	8.85*	.20
부모감독	3.01	2.89	8.18*	-.13
파트너로부터의 압력	1.55	.89	7.62*	.49
파트너에 대한 헌신	1.60	1.13	7.11*	.41

a: Stepwise 분석에서 추출된 변수들이 나타나 있으며 추출되지 않은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형제자매의 성태도 유사성, 부모와의 관계, 부모와의 성태도 유사성, 성파트너수, 파트너와 성태도 유사성, 친구들의 성파트너수, 음란물 시청 및 어머니 학력.

\*  $p<.00005$



는 요인이었고 분위기도 원치 않는 성행동의 발생에 강력한 영향을 주었다. 즉 분위기가 로맨틱하고 좋을수록 청소년들은 원치 않는 성행동에 관여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성별을 보면 남자보다는 여자청소년들이 원치 않는 성경험에 더 관련되어 있었다. 임신경험과 성별은 이분변수(dichotomous variables)인데 이런 변수가 사용된 경우에, 직선적 판별기능은 판별변수가 등간척도나 비율척도로 측정되지 않고 이분화된 경우에도 무리없이 잘 기능한다고 보고되고 있다(Gilbert, 1968; Moore, 1973; Norusis, 1992에서 재인용).

상황적 요인에서의 음주는 원치 않는 성접촉 발생과 관련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많은 선행연구 결과(Abbey et al., 1994, 1996)와도 일치한다. 성행동의 경험도 청소년들의 원치 않는 성접촉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즉 성경험 정도가 많아질수록, 그리고 더 진행된 성행동에 관여할수록 원치 않는 성접촉을 할 가능성도 많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파트너에게서 성접촉에 대한 압력을 받는 것도 원치 않는 성접촉을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었다. 파트너와의 관계에 대해서 헌신수준이 높고 파트너에 대한 애정이 많을 때 원치 않는 성접촉이 더 많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은 파트너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고 그 관계에 대한 헌신정도가 높을 때는 자신이 원하지 않더라도 파트너의 성접촉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런 상황이 파트너에게서 성접촉에 대한 압력을 받는 경우와 겹친다면 원치 않는 성접촉을 거절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성파트너 수는 선행연구와는 달리 유의한 예측변수로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자는 이 결과를 주의깊게 살펴보았으나 이것이 성파트너수가 실제보다 적게 보고되었거나 혹은 성파트너수보다는 성관계를 가진 경험여부가 국내 청소년들의 원치 않는 성접촉을 더 유의하게 예측할 것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지 추론하기가 쉽지 않았다.

가족적 요인을 보면, 자녀에 대해서 부모의 감독이 있을 때 원치 않는 성접촉은 더 적게 발생하였다. 청소년 자녀들에 대해서, 특히 딸의 경우에 부모

가 자녀의 일정이나 친구관계에 대해서 적절히 감독하고 있는 것은 원치 않는 성행동의 발생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부모의 성태도 및 형제자매의 성태도와 유사성과 부모와의 관계는 청소년들의 원치 않는 성접촉의 발생을 예측하지 않았다. 이것은 대학생들의 성행동에 있어서도 나타난 부분(윤경자, 1995)으로서 오늘날 부모와 가족의 성태도가 청소년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양쪽 부모와 생활하는 것은 편부모나 계부모와 생활하는 것보다 원치 않는 성접촉에 더 적게 관련되어 있었고 가족소득이 높은 것도 이런 행동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 약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또한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원치 않는 성접촉이 발생하는 것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이 관계는 29로서 강력하지는 않지만 다른 가족적 요인들보다는 영향력이 높았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원치 않는 성접촉의 발생을 더 예측하였다. 그러나 부모와 유사한 성태도를 가지는 것과 같은 요인은 원치 않는 성경험을 한 청소년들에게 유의한 예측변수로 기능하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부모들이 자녀들의 문제행동 여부에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청소년 자녀들과 성에 관한 대화를 거의 하지 않는 현상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친구와 유사한 성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청소년들이 원치 않는 성접촉에 더 많이 관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었다. 이것은 선행연구에서도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며 특히 청소년들의 비행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문제 행동에 관여하는 청소년들에게 친구의 규범에 대한 순응은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암시해준다.

원치 않는 성행동에 관여하지 않는 청소년들은 부모의 적절한 감독을 받고 있었고, 편부모나 계부모 등의 결손가족 배경이 아니며, 임신경험이 없고, 성행동 수준이 낮으며, 음주나 분위기 등 위험요인이 되는 환경에 더 적게 접하였다. 또한 자신의 행동에서 친구의 태도나 기대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원치 않는 성행동을 경험하는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었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판별분석을 통해 원치 않는 성접촉의 유경험 청소년과 무경험 청소년들을 구별하고자 하였다. 예측비율은 유경험 청소년이 65%, 무경험 청소년이 84%로서 유경험 청소년보다 무경험 청소년들의 예측이 더 정확하게 나타났다. 즉 본 연구에서 나타난 위험요인들은 무경험 청소년들을 더 정확하게 구별해 낸다는 뜻인데, 이것은 청소년 성행동에서 성행동을 경험한 청소년과 성행동을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간 구별이 원하지 않는 성행동을 경험한 청소년과 자발적인 성경험을 한 청소년간 구별보다 더 용이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것이다. 또한 두 집단의 표본수가 차이가 났으므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판별분석에서 종속집단들의 표본수가 차이가 많이 있을 때는 분류단계에서 표본수가 많은 집단이 분류될 기회를 더 많이 가지게 된다(Hair, Jr., Anderson, Tatham, & Black, 1995).

사실상 자발적인 성경험과 원치 않는 성경험을 뚜렷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성경험이 처음부터 원치 않는 접촉으로 시작되는 강제적인 것이 있는 가하면,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시작하였으나 일정수준 이상의 접촉은 원치 않았는데도 본인의 의사와 반하여 그 이상의 경험을 강제로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두 영역간 경계가 겹치는 부분이 있게 되며 원치 않는 성행동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예측에는 이로 인하여 나타나는 오류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원치 않는 성접촉집단, 자발적 성접촉집단 및 무경험집단으로 집단을 세분화시키고 보다 구체적인 측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나이가 더 많은 다른 인구집단과 비교할 때 청소년들의 성행동 발생을 자체가 낮기 때문에 문제집단이 아닌 일반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집단을 세분화하기가 쉽지 않다. 이것은 후속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할 부분으로 생각하며, 이와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원치 않는 성행동에 대한 연구가 극소수인 상황에서 이것의 실태와 관련된 위험요인들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 성행동 중에서도 원치 않는 성접촉을 경험한 청소년이 7%에 이르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들 중 대다수는 여학생으로 나타남으로써, 위험군에 속한 청소년들에게는 원치 않는 성접촉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청소년 열네 명 중 한 명은 원하지 않는 성접촉을 당했다는 뜻인데 판별분석에서 이용된 조사대상자들을 근거로 하면 여덟 명 중 한 명(12%)에 이른다. 이것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나타난 22%의 비율(김예정, 김득성, 1999) 및 27.8%의 비율(김용미, 김현옥, 2001)과 비교하면 다소 낮은 수치이나 김용미와 김현옥의 연구에서는 신체의 일부를 쳐다보는 것과 같은 직접적 접촉이 아닌 행동도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나이가 어린 청소년기에 발생한 원치 않는 직접적인 성접촉의 문제는 예상보다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강간을 포함한 다양한 성적공격의 피해자들은 뒤에 다시 피해자가 됨으로써(Gidycz, Hanson, & Layman, 1995), 청소년들이 향후 성적피해를 당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청소년들의 이러한 성행동은 청소년문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원치 않는 성접촉의 피해자가 된다고 나타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부부폭력의 전조가 될 수도 있다.

원하지 않는 성접촉의 피해자들의 성별은 대부분 여학생들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데이트폭력 등 원치 않는 성행동의 피해자가 더 되기 쉽다는 대다수의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지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김예정과 김득성(1999)의 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원치 않는 성접촉을 경험한 대상을 자신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나 어른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것을 조사하였는데 이것은 데이트 상황에서의 원치 않는 성행동 뿐만 아니라 강간이나 원조교제와 같은 경우도 해당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본 연구에서 원치 않는 성행동에 관련된 위험요인들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이런 경험을 한 표본수를 성별에 따라 나누었을 경우, 제한적인 표본수로 인한 통계적 검증의

어려움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다.

특히 이 연구는 대상이 청소년들이었으므로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려할 점이 많았다. 원치 않는 성접촉의 범위를 세분화하여 노출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므로 청소년임을 감안하여 포괄적인 용어로 대체하였는데, 구체적 행동을 세분화하지 못한 이 부분은 매우 아쉬운 점이자 이 연구의 제한점이라고 하겠다. 실제로 한 학교에서는 설문지의 내용이 학생들 나이수준보다 성숙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거절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성접촉의 유경험 청소년들과 무경험 청소년들간 차이를 가져오게 하는 위험요인들을 파악하였고 그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원치 않는 성경험을 하였던 청소년들을 파악하는 위험요인들 중 가장 강력한 요인은 임신경험이었다. 임신이 우발적인 성폭행의 결과인지 혹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성행동의 결과인지는 알 수 없으나 임신의 경험이 있었을 때에는 원치 않는 성접촉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

청소년들은 상황적 요인들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분위기는 두 번째로 강력한 요인이었다. 이성과의 관계에서 분위기는 원치 않는 성접촉이 발생하는 데 관련이 있었다. 이것은 대학생들의 성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윤경자, 1995),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에 비해 통제력과 절제력이 더 약한 청소년들은 분위기에 더욱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분위기는 본 연구와 윤경자(1995)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선행연구에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한 변수이다. 그러나 대학생들에 이어서 청소년들에게도 분위기가 원치 않는 성행동을 예측하는 데 강력한 요인으로 나타남으로써 이 위험요인에 대해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결과는 청소년지도와 상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큰 데,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성교제를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분위기 외에도 청소년들은 음주를 한 경우에도 원치 않는 성접촉이 많이 발생하였다. 음주와 데이트폭력간 관계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부분으로서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음주는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성행동과 관련된다는

것이 더 심각할 것이다. 음주를 한 경우에는 분위기에 휩쓸리기가 더 쉽다. 뿐만 아니라 특히 원치 않는 성접촉의 피해자인 여학생들이 음주를 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상대편 가해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본인이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자신을 방어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Testa와 Livingston (2000)도 종단적 연구를 통해서 음주는 성적 피해와 관련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적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 여성들은 향후 다른 성적피해를 겪기 쉽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두 변수간 인과관계를 규명하였다. 음주는 본 연구에서도 원치 않는 성접촉을 예측하는 강력한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음주, 임신 및 분위기는 성별을 제외하고는 청소년들의 원치 않는 성행동과 관련된 가장 강력한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음주와 임신은 그 자체만으로도 청소년들에게 문제가 되지만 더 심각한 원치 않는 성행동의 피해자가 된다는 점에서 복합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위험요인들이다. 따라서 청소년지도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임신 및 음주와 같은 문제행동에서 벗어나고 분위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다른 상황적 요인으로서 파트너로부터의 압력을 들 수 있다. 이 요인은 판별함수에서 거의 마지막으로 추출된 변인이었지만 여전히 유의하였다 ( $p < .00005$ ). 파트너에게서 성접촉을 하도록 압력을 받은 것은 원치 않는 성접촉을 예측하는 위험요인이었다. 특히 이 요인은 실제상황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개연성에도 불구하고 관련연구에서 거의 주목받지 못한 변수이다. 청소년들이 성행동을 가지기를 원하지 않더라도 파트너로부터 압력을 받을 때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그 파트너를 좋아할 때 이런 압력을 거절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결과는 청소년들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청소년 성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이 요인에 대해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관계적 요인들로서는 파트너에 대한 사랑 및 헌신과 성행동 수준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원치 않는 성접촉이 데이트파트너에게서 일어난다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Koss, Dinero, Seibel 및 Cox(1988)의 연구에서 대다수의 성폭력의 가해자는 데이트파트너였다고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원치 않는 성접촉도 데이트파트너에게서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파트너에게서 애정을 느끼고 그 관계에 대한 헌신수준이 높을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성행동에 대한 압력을 받는다면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거절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이 성행동 경험이 많은 것은 Abbey, Ross, McDuffie 및 McAuslan(1996)의 연구결과와 같이 청소년들이 원치 않는 성행동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성행동 경험이 많은 청소년이 원치 않는 성행동의 피해자가 더 되기 쉽고, 서로 아는 친밀한 관계일수록 이런 위험이 더 증가하는 것은 청소년기의 성행동이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청소년의 성격형은 그 행동 자체로도 문제를 내포하고 있고 원치 않는 성행동의 피해자로 이끌 뿐 아니라 차후 원치 않는 성행동의 피해자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측면으로 피해를 입히게 된다. Koss, Dinero, Seibel, & Cox(1988)는 서로 아는 친밀한 관계일수록 이런 위험이 더 증가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것은 본 연구의 결과와도 관련된 부분이다.

가족적 요인으로서의 아버지의 학력과 가족소득, 부모의 결혼형태 및 부모의 감독이 위험요인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족소득이 더 적을 때, 부모가 감독을 하지 않을수록, 그리고 편부모나 계부모와 생활할 때 원치 않는 성행동의 발생을 예측하였다. 이 중에서 아버지의 학력은 정준판별함수간 집단내 상관관계가 .29로서 강력하지는 않지만 다른 가족적 요인들보다는 판별함수의 집단내 구조계수가 더 높았다.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 때 청소년들의 원치 않는 성접촉의 발생이 더 많이 관련된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이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가족관계를 더 심도있게 분

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므로 추론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어머니의 학력은 유의하지 않았으나 가장인 아버지의 학력이 유의하게 나타난 부분은 사회계층이 주로 아버지의 직업에 의해 결정되므로 계층에 상관없이 청소년들이 원치 않는 성행동을 경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더 보완적인 자료가 필요하며 이것은 후속연구에서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부모의 감독과 청소년의 성행동간 관계는 선행연구에서도 유의하게 나타난 부분으로서, 청소년들이 부모가 자신의 스케줄, 계획, 친구들 및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들의 원치 않는 성접촉이 적게 발생하였다.

부모와 관련된 변수 중에서는 부모의 감독만이 유의하게 나타난 반면에 부모와의 관계와 부모의 성태도와 유사성은 청소년들의 원치 않는 성행동의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청소년기가 부모에 대해 불만을 많이 가지는 때이고 갈등이 많은 때임을 고려하면 놀랄만한 결과는 아니다. 부모교육의 측면에서 보면, 부모의 감독은 청소년들의 원치 않는 성행동 경험여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부모의 적절한 감독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부모의 감독은 자녀의 행동을 감시한다기보다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애정을 나타내는 측면이 더 중요하다. 즉, 부모가 자녀의 친구가 누구인지 알고 있고 자녀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아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 애정과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결과는 가족구성원들간에 과도하게 분리되어 있을 때에는 자녀의 비행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임상적 결과와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다.

가족소득은 일곱 번째로 추출된 위험요인인데 판별함수의 집단내 구조계수가 -.10으로서 원치 않는 성접촉의 발생과는 약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즉 부모의 소득이 적을 때 원치 않는 성접촉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었으나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

또한 청소년들이 친구의 기대에 따르고 성태도와 유사한 것은 판별함수의 집단내 구조계수가 .31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성태도와 성경험에 있어서 친구들과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친구의 성규범을 받아들일 때 원치 않는 성행동에 더 많이 관여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결과도 원치 않는 성행동과 같은 문제 행동에서 친구들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청소년들이 문제행동을 일으킬 때 혼자서 관여하기보다는 비슷한 또래친구와 관여하게 된다는 것은 청소년교육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청소년들은 성문제에 있어서도 친구들의 기대나 규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으며 동시에 자신도 다른 친구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친구선택에 관한 지도와 좋은 친구를 선택할 능력을 키우도록 자녀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성행동에서 잘 드러나지 않은 측면인 원치 않는 성접촉의 발생을 살펴보고 관련되는 위험요인들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14명 중 1명의 청소년들(7%)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어른에 의한 원치 않는 성접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원치 않는 성접촉은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많이 경험하였다. 셋째, 원치 않는 성접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황적 요인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즉 청소년들은 임신과 음주 등 문제행동에서 벗어나고 분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한 파트너로부터 성적 압력을 받을 만한 장소와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파트너와 관련된 위험변인으로서 성행동의 경험수준, 파트너로부터의 압력 및 파트너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다섯째, 가족적 요인으로서 부모의 적절한 감독이 있을 때 청소년들은 원치 않는 성접촉을 더 적게 경험하였다. 또한 양쪽 생물학적 부모와 생활하거나 가족소득이 높은 것도 청소년들의 원하지 않는 성행동의 낮은 발생과 관련되어 있었다. 여섯째, 원치 않는 성행동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친구들의 성태도 및 성경험과 더 유사하였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친구들의 이해정도가 높을 것이라고 인지하였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원치 않는 성행동을 경

험한 청소년들에게 다각도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본 연구는 이들의 성행동을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 청소년지도와 상담에서 다양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확인하고 제한점을 보완하여 연구영역을 확대시키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김예정, 김득성(1999). 대학생들의 데이팅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II):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3), 187-202.
- 김용미(1994). *판별분석. 가족학 자료분석 방법*. 한국가족학연구회 편. 도서출판 하우.
- 김용미, 김현옥(2001). 남녀 고교생이 이성교제 단계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성적 폭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4), 185-199.
- 윤경자(1995). 대학생들의 혼전 성허용도에 관련된 변인들. *대한가정학회지*, 33(4), 251-263.
- 조선일보(1999a) 1999. 9. 4일자  
 \_\_\_\_\_(1999b) 1999. 9. 6일자  
 \_\_\_\_\_(2001). 2. 23일자
- Abbey, A., & Harnish, R. J. (1995). Perception of sexual intent: The role of gender, alcohol consumption and rape supportive attitudes. *Sex Roles*, 32, 297-313.
- Abbey, A., McAuslan, P., & Ross, L. T. (1998). Sexual assault perpetration by college men: The role of alcohol, misperception of sexual intent, and sexual beliefs and experiences.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17(2), 167-195.
- Abbey, A., Ross, L. T., & McDuffie, D. (1994). Alcohol's role in sexual assault. In Watson, R. R. (Ed.). *Drug and alcohol abuse reviews*. Vol.5. *Addictive behaviors in women*, pp.97-123. Totowa, NJ: Human Press.
- Abbey, A., Ross, L. T., McDuffie, D., & McAuslan, P. (1996). Alcohol and dating risk factors for

- sexual assault among college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0, 147-169.
- Abbey, A., Zawacki, T., Buck, P. O., Clinton, A. M., & McAuslan, P. (2001). Alcohol and sexual assault. *Alcohol Research and Health*, 25(1), 43-51.
- Byers, E. S., & Eno, R. J. (1991). Predicting men's sexual coercion and aggression from attitudes, dating history, and sexual response. *Journal of Psychology and Human Sexuality*, 4, 55-70.
- Chilman, C. S. (1986). Some psychosocial aspects of adolescent sexual and contraceptive behaviors in a changing American society. In J. Lancaster & B. Hamburg (Eds.), *School-age pregnancy and parenthood: Biosocial dimensions*. (pp.191-218), New York: Aldine de Gruyter.
- Christopher, F. S. and Cate, R. M. (1985). Anticipated influences on sexual decision-making for first intercourse. *Family Relations*, 34, 265-270.
- Collins, J. J. and Messerschmidt, P. M. (1993). Epidemiology of alcohol-related violence. *Alcohol Health & Research World*, 17, 93-100.
- Concoran, K. J., & Thomas, L. R. (1991). The influence of observed alcohol consumption on perceptions of initiations of sexual activity in a college dating situatio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1, 500-507.
- Craig, M. E. (1990). Coercive sexuality in dating relationships: A situational model. *Clinical Psychology Review*, 10, 395-423.
- Craig, M. E., Kalichman, S. C., & Follingstad, D. R. (1989). Verbal coercive sexual behavior among college student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18, 421-434.
- Erikson, P. and Rapkin, A. (1991). Unwanted sexual experiences among middle and high school youth.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12, 319-325.
- George, W. H., Cue, K. L., Lopez, P. A., Crowe, L. C., & Norris, J. (1995). Self-reported alcohol expectancies and postdrinking sexual inferences about wome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5, 164-186.
- Gidycz, C. A., Hanson, K., & Layman, M. J. (1995). A prospectiv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among sexual assault experience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9, 5-19.
- Gilbert, E. S. (1968). On discrimination using qualitative variable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63, 1399-1412.
- Hair, Jr., J. F., Anderson, R. E., Tatham, R. L., & Black, W. C. (1995). *Multivariate data analysis*. 4th ed., Ea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Hall, E. R. and Flannery, P. J. (1985). Prevalence and correlates of sexual assault experiences in adolescents. *Victimology: An International Journal*, 9, 398-406.
- Herold, E. S., & Goodwin, M. S. (1981). Adamant virgins, potential non-virgins, and non-virgins. *Journal of Sex Research*, 17, 97-113.
- Himelein, M. J. Vogel, R. E., & Wachowiak, D. G. (1994). Nonconsensual sexual experiences in precollege women: Prevalence and risk factor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2(4), 411-.
- Hovell, M., Sipan, C., Blumberg, E., Atkins, C., Hofstetter, C. R., & Kreitner, S. (1994). Family influence on Latino and Anglo adolescents' sexual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973-986.
- Irwin, C. E., Jr., & Shafer, M. A. (1992). Adolescent sexuality: Negative outcomes of a normative behavior. In D. E. Rodgers & E. Ginzberg (Eds.), *Adolescents at risk: Medical and social perspectives*. (pp 35-79). Boulder, CO: Westview Press.
- Kanin, E. J. (1985). Date rapists: Differential sexual socialization and relative deprivation. *Archives of Sexual Behavior*, 14, 219-231.
- Kinsman, J., Nyanzi, S., & Pool, R. (2000). Socializing

- influences and the value of sex: The experience of adolescent school girls in rural Masaka, Uganda. *Culture, Health, & Sexuality*, 2(2), 151-166.
- Koss, M. P. (1985). The hidden rape victim: Personality, attitudinal, and situational characteristic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9, 193-212.
- Koss, M. P. (1988). Hidden rape: Sexual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in a national sample in higher education. In A. W. Burgess (Ed.), *Rape and sexual assault*. Vol. II. pp. 3-25. New York: Garland Press.
- Koss, M. P. and Dinero, T. E. (1989). Discriminant analysis of risk factors for sexual victimization among a national sample of college wom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 242-250.
- Koss, M. P., Dinero, T. E., Seibel, C. A., & Cox, S. L. (1988). Stranger and acquaintance rape: Are there differences in the victim's experienc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2, 1-24.
- Koss, M. P., Gidycz, C. A., & Wisniewski, N. (1987). The scope of rape: Incidence and prevalence of sexual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in a national sample of higher education stud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 162-170.
- Koss, M. P., Leonard, K. E., Beezley, D. A., & Oros, C. J. (1985). Nonstranger sexual aggression: A discriminant analysis of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undetected offenders. *Sex Roles*, 12, 981-992.
- Lisak, D., & Roth, S. (1988). Motivational factors in nonincarcerated sexually aggressive 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795-802.
- Lock, S. E., & Vincent, M. L. (1995). Sexual decision-making among rural adolescent females. *Health Values*, 19(1), 47-58.
- Malamuth, N. M. (1986). Predictors of naturalistic sexual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 953-963.
- Malamuth, N. M., Linz, D., Heavey, C. L., Barnes, G., & Acker, M. (1995). Using the confluence model of sexual aggression to predict men's conflict with women: A 10-year follow-up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353-369.
- Malamuth, N. M., Sockloskie, R. J., Koss, M. P., & Tanaka, J. S. (1991). Characteristics of aggressors against women: Testing a model using a national sample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 670-681.
- Moore, D. H. (1973). Evaluation of five discrimination procedures for binary variable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68, 399-.
- Muehlenhard, C. L., & Linton, M. A. (1987). Date rape and sexual aggression in dating situations: Incidence and risk factor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 186-196.
- Norusis, M. J. (1992). *SPSS/PC+ Professional statistics version 5.0*. SPSS Inc.
- Patterson, G. and Strouthamer-Loeber, M. (1984). The correlation of family management practices and delinquency. *Child Development*, 55, 1299-1307.
- Small, S. A. and Eastman, G. (1991). Rearing adolescents in contemporary society: A conceptu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responsibilities and needs of parents. *Family Relations*, 40, 455-462.
- Small, S. A. and Kerns, D. (1993). Unwanted sexual activity among peers during early and middle adolescence: Incidence and risk fact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4), 941-952.
- Small, S. A. & Luster, T. (1994). Adolescent sexual

- activity: An ecological risk-factor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181-192.
- Smith, C. (1997). Factors associated with early sexual activity among urban adolescents. *Social Work*, 42(4), 334.
- Sonenstein, F. L., Pleck, J. H., Ku, L. C. (1989). Sexual activity, condom use and AIDS awareness among adolescent males.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21, 152-158.
- Sorenson, S. B., Stein, J. A., Siegel, J. M., Golding, J. M., & Burnam, M. A. (1987). The prevalence of adult sexual assault: The Los Angeles epidemiologic catchment area project.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26, 1154-1164.
- Subin, C. M. (1999). Factors associated with the initiation of sexual intercourse among young urban adolescent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A: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60(2), 553-A.
- Testa, M., & Livingston, J. A. (2000). Alcohol and sexual aggression: Reciprocal relationships over time in a sample of high-risk wome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5(4), 413-427.
- Zabin, L. S. Hirsch, M., Smith, E., & Hardy, J. (1984). Adolescent sexual attitudes and behavior: Are they consistent?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16, 181-185.